

현대패션에 표현된 리얼리즘 경향에 관한 연구 -도미에(Honoré Daumier's)의 회화에 나타난 조형성을 중심으로-

노 영† · 임 남 영*

오산대학 강사†
오산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Tendency of Realism in Modern Fashion -Focusing on Realism Formativeness expressed in the World of Honore Daumier's Art-

Young Row† · Nam-Young Im*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Osan College†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Osan College*

(2004. 10. 15. 접수; 12. 4. 채택)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Honore Daumier's realism formativeness, review it in connection with socio-cultural conditions, analyze costume designs by a style of realism formativeness, in order to find the value. For the study, the procedure included the review of Daumier's works and world, together with realism formativeness. Then, Daumier's realism formativeness applied to costume designs were categorized and found the features of each style. Finally, it sought the implication of realism formativeness in costume designs. Honore Daumier, a realist of France in the 19th century, has been reputed that he pursues plain reality with a satire, uses all the conditions of humans as his object, and observes the vanity, desire, and foolishness of humans to represent his own expression techniques as cold as a stone. Realism formativeness is characterized by adherence to observing reality and engagement in reality, an effort to represent the world as it is as what we sense it without diluting or omitting it, nor any deception. The following terms can be used to describe the three styles of intentional recreation, satire on reality, and real existence; For intentional recreation in costume may be featured by the avant-garde, the pursuit of autonomy, reconstruction, rediscovery, recombination, reinterpretation, neutralized representation (reality + the abstract), transformation, distortion, shock, and unexpectedness, etc. For satire on reality in costume, satirical criticism and mockery in a coexistence of time and space, dualism due to the combination of the exterior and the interior, reality reflecting the actual reality, and irony are those words. Real existence in costume may be described with objectivity, ordinarity, correctness of representing a theme, impersonality excluding subjectivity, clearness, certainness, and preciseness, etc.

Key Words: realism formativeness(리얼리즘 조형성), intentional recreation(의도적 재창조성), satire on reality(현실 풍자성), real existence(실재성)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는 과학의 경이적인 진보로 산업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사회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인간의 물질생활과 정신영역에 침투하여 의식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기계문명이 초래한 물질 만능주의 문화는 왜곡된 가치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사유적 피폐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꼽히는 '진실'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예술분야에 있어서 '진실'의 재인식은 미술, 건축, 문학, 영화, 등 여러 장르에서 시도되어 왔으며 현대에 와서는 상업성을 띤 패션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시대의 문화와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패션은 상업성과 더불어 현대인의 내면적 문제를 인식시키고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대중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잘못된 인식에 대한 각성의 계기를 만들기도 하는 그 시대의 문화 경향을 대변하는 좋은 매개물로 설명되고 있다.

실재하는 현실을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여겼던 19세기 리얼리즘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사실적 재현에 의한 치밀한 사실 기법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사회적 개선을 위해 현실을 해석하고 제시하기도 하며, 대상 자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이미지를 파악하여 형상화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하였다.

현대 리얼리즘은 일상적 소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거나 인간 생활 속에서 삶을 직시 하며, 내적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좀더 진실 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것을 진실이라 생각하였으며, 이는 현대 패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어떠한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예술은 당대의

현실과 밀착하여 발전해 왔으며, 19세기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오노레 도미에(Honoré Daumier)는 19세기 프랑스의 리얼리스트로서 풍자의 방법으로 꾸밈없는 진실을 추구하며 인간과 인간의 모든 상황을 표현의 대상으로 인간의 허영, 욕망, 어리석음을 객관적인 관찰 분석을 통해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냉혹하게 그려내려 노력 했던 화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현실 세계를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편견 없이 관찰하고 정확하게 묘사하여 그의 작품에는 실재성이 나타나있고, 그 시대의 특질을 이루는 구체적인 경험, 사건, 풍속 등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현실 풍자성, 단순한 모방이 아닌 이해를 통한 참다운 존재를 파악하려는 현실 모방적인 의도적 재창조성의 유형으로 리얼리즘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리얼리즘의 표현은 현대 패션에서 표현되었다. 현대 패션에 리얼리즘 조형성 유형을 도입함으로서 패션이 과시적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물질만능주의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삶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보다 높은 차원의 심미적 효율성도 지닐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리얼리즘의 경향을 파악함에 '진실'을 강조한 19세기 리얼리즘이 어떻게 변화되어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지를 도미에의 회화와 연결시켜 파악하고, 리얼리즘 경향을 띠고 있는 현대 패션을 리얼리즘 조형성의 유형인 실재성, 풍자성, 재창조성으로 분류하여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도미에의 회화에서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을 연결시켜 문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도미에의 리얼리즘 조형성이 현대 패션에 표현된 컬렉션 작품을 참고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오노레 도미에의 작품세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리얼리즘 조형성의 고찰한다.

연구문제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을 유형별로 분류? 분석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알아본다.

[†]Corresponding author ; Young Row

Tel. +82-17-203-9335, Fax. +82-31-373-9628

E-mail : rowyg2@empal.com

연구문제 4. 패션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의 의미 알아본다.

II. 오노레 도미에의 작품세계

1. 오노레 도미에(Honoré Daumier)

급변하는 세계역사의 현실 속에서 오노레 도미에의 작품들은 19세기 프랑스 시대의 사회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전통적인 회화관을 거부한 독창적이면서도 독특한 시각을 리얼리즘적 풍자화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작품 세계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 1851년의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 1870년의 보불전쟁으로 이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혼란함과 함께 근대사회의 이행 및 형성과정에서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는 부르조지(bourgeoisie)의 횡포, 배금(拜金)주의에 대항하여 화가로서의 항의를 표현하고, 자본주의의 진행과정과 함께 새롭게 사회문제로 등장한 소외받는 프랑스의 빈민계층에게는 애정 어린 시선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 변화하는 사회 현실 속에 오노레 도미에 그의 풍자세계는 폭이 넓어 당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표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인 관점에서 당시 지도층의 부패하고 타락한 제도나 위선의 가면 아래 깔린 인간의 혀영, 욕망, 어리석음을 객관적인 관찰 분석을 통한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냉혹하게 그려내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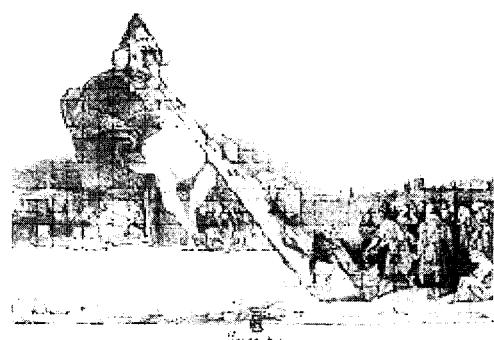
도미에는 풍자를 통해 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부조리에 대한 강렬한 고발을 멈추지 않은 사회 비평가로써, 또한 그것을 넘어 소외를 배격하고 이상적인 인간의 삶을 추구했던 휴머니스트이기도 했고, 또한 풍자화를 통해 화가와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의 작품세계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40년 이상에 걸쳐 그의 창작과정에 대한 충실히 훌륭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도미에는 누구와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시대를 현실 그대로 반영한 풍자 화가이다. 낮은 수준밖에

취급되지 않던 당시의 판화나 풍자화를 당당히 미술사적 가치의 한 영역으로 끌어 올린 작가였고, 한 인간으로서 거친 역사의 현장에서 소외된 서민의 입장을 기꺼이 대변하는 진정한 휴머니스트(humanist)였으며,²⁾ 그의 작품에 내포되어 있던 정신적 세계의 의미나, 과장되고 격정적인 표현요소와 빛의 조형적 효과는 인상파 이후 영향을 주어 근대미술의 전위로 이어지는 만큼, 열악한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극복하고 치열한 작가정신으로 끈질기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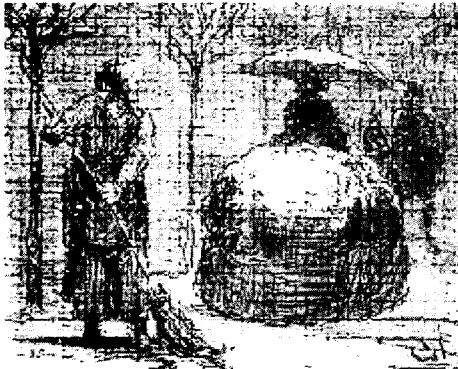
2. 도미에 회화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

도미에는 그 당시의 사회와 풍속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풍자화를 제작한 리얼리즘(realism)의 대표 작가이다. 루이 필립 왕정에 의해 자본주의적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석판 인쇄술의 보급으로 더욱 비판적이고 풍자적으로 변화된 도미에는 「가르강튀아(gargantua)」라는 작품에서 새로운 황제 루이 필립의 군주정치가 전횡을 일삼자 도미에는 필립을 배 모양의 머리(배는 프랑스에서 바보를 의미한다)를 하고 변기에 앉아서 국가 재산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동시에 이를 배설하여 아첨꾼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인으로 묘사하는 석판화를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당대의 민감한 정치적 현안을 도미에 특유의 재치와 해학적으로 그려낸 걸작이다 <그림1>³⁾. 1835년부터 정치적 풍자에서 사회적 풍자로 전향한 도미에는 주로 도시의 거리와 법정을 소재로 다루었는데, 「눈길의 크리놀린 치마(the crinoline in snow)」는 그 중 하나다.



〈그림1〉 〈가르강튀아(gargantua)〉, 1834. 석판화
<http://www.wolganmisool.com>

이 작품은 페티코트를 넣은 넓은 크리놀린 치마 윗 부분에 눈이 쌓인 채 눈 오는 거리를 걸어가는 파리의 부르주아 계층의 부인을 묘사한 것으로, 그녀의 뒤에는 이와 대조적인 낡고 남루한 옷차림의 여자 청소부가 긴 빗자루를 들고 허리를 구부린 채 눈을 쓸고 있다. 도미에는 자신들만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르주아의 생활상을 코믹하게 풍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림2>⁴⁾, 법관의 권위적이고 교만한 얼굴, 거만하게 휘날리는 그들의 법관복 등으로 다양한 법관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그림3>⁵⁾.



<그림2> 〈크리놀린 치마(the crinoline in snow)〉, 1858. 석판화
<http://www.wolganmisool.com>



<그림3> 〈대화하는 세 변호사〉, (1843~46). 캔버스에 유채
<http://www.artwoman.net>

이와 같이, 도미에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풍자성을 관찰해 보면 그가 일상생활의 새부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 시대의 생활상을 비판하며 사실적 관찰에 뿌리를 둔 현실 풍자 나타내고 있음을



<그림4> 〈세탁부〉, 1860. 목판유채
<http://namqane.cafe24.com>

알 수 있다.

도미에의 작품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휴머니즘적인 요소이다. 그는 언제나 동시대의 현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림4>⁶⁾는 방금 강가에서 빨래를 끝내고 제방을 오르는 여인과 아이를 그린 것이다. 한쪽 팔로 빨래 더미를 가득 안은 어머니는 혹시나 아이가 계단을 헛디딜까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있는 중이다. 도미에의 세심한 관찰력은 아직 키가 작아 계단을 오르기 힘든 아이가 다리를 한껏 올려 계단을 오르는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환하게 빛나는 건물들을 뒤로한 채, 역광을 받아 어둡게 처리된 인물들은 얼굴의 윤곽이 생략되어 그려졌다. 특정한 인물을 나타내지 않는 이러한 익명성은 오히려 당시 도시 노동자 계층의 여성, 그 고단한 삶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한다. 도미에는 당시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진 도시 노동자들, 소외된 여성들의 모습에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그의 그림들은 결코 서민들의 모습을 미화시키거나 왜곡시켜 그려지지 않았다. 그의 그림들은 일상적인 표현을 객관적으로 정학하게 그려낸 리얼리즘으로 그 작품에서 나타난 실재성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5>⁷⁾, <그림6>⁸⁾의 「삼동열차」와 같은 고독하고 지쳐있는 군중의 모습을 통해 그 당시의 실상을 표현하게 된다⁹⁾.

이와 같이 도미에는 보이는 대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의 진실에까지 통찰하여 집권층이나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사회체제의 부산물인 사회악을 고발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진실



〈그림5〉 〈3등 열차(The Third-Class Carraige)〉, (1862). 목판 유채
<http://www.wolganmisool.com>



〈그림6〉 〈3등 열차(The Third-Class Carraige)〉, (1863-65). 목판 유채
<http://artchive.com>

을 객관성 있는 정확성과 일상성을 리얼리즘의 신재성으로 잘 표현하고자 했다¹¹⁾.

이와 같이 도미에는 인간과 현실을 궁극적인 주제로 하여 인간의 진실을 추구하려는 신념을 보였다.

도미에는 기사도의 이상에 심취한 봉상가 돈키호테를 감정적으로 묘사한 주제를 즐겨 그렸다. 그 이유는 자기 속에 돈키호테적인 이상주의자, 당시의 권력에 대해서 풍자화로써 문자 대로, '당장 지부' 같은 싸움을 걸고, 또한 단순한 만화가가 아니라, 진정한 대화가 연하려는 시도가 몇 번 좌절되어도 다시 일어나려는 과대 망상적인 인간과, '현실'에 대한 충분한 관찰력, 이해력, 그리고 분별력을 갖춘 부르조와의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에 연유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육체적으로는 산초 판사 형이었던 도미에지만, 이 상징을 사용한 일련의 작품에서 돈키호테의 정신적 의



〈그림7〉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1850). 검정 크레용 수채
<http://artchive.com>

미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여기서도 산초 판사는 얼굴 생김새마저 뚜렷하지 않은 데 비해, 돈키호테 쪽은, 아주 미미한 턱치를 극히 유효하게 사용함으로써,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앞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스꽝스럽고 영웅적인 면모가 표현되어 있다<그림7>¹¹⁾.

III. 리얼리즘 조형성

1. 리얼리즘의 출현 및 전개

1) 리얼리즘의 정의

리얼리즘(realism)은 하나의 언어적 산물로서 1821년에 제안되어 19세기 중엽에 일정한 경향의 예술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¹²⁾ 리얼리즘이 원칙적으로 모방이론, 즉 미메시스¹³⁾로부터 출발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상주의적,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실제하는 현실을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표현하고자 했다.¹⁴⁾

리얼리즘에서 예술 제작에 있어 드러나는 여러 이상주의적 경향들 즉, 낭만주의·고전주의·예술지상주의·형식주의 등에 대립하여 재현적 묘사에 중점을 두는 '현실 접근적인 행위'¹⁵⁾로서의 경향을 총칭한다. 리얼리즘에 있어서 예술이란, 그 본적으로 외적 진실의 객관적 재현이라는 것이 기본적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재로서 외부세계, 특히 주변 가까이에 있는 평범한 것들을 선택하게 했다. 리얼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예술은 실재론적 철학에서처럼

사물의 객관적 존재에 대한 신뢰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인간이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의 환경과 정확하고 완벽한, 그리고 성실한 시대의 재생이 리얼리즘적인 것이다. 리얼리즘 조형성은 ‘특수한 것 속에서의 보편적인 것’을 강조하고, 현실이나 물리적 존재의 형태를 보편화되었지만 확고하고 리얼한 형상을 통해서 나타내려 한다.

리얼리즘 조형성은, 현실에 대한 관찰에의 고집과 현실 참여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는 미의 세계를 그대로, 희박하게 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어떠한 눈속임도 없이 재현하려는 노력이다.¹⁶⁾

리얼리즘은 스스로가 현실 세계에, 즉 무조건적으로 스스로의 몸을 의탁하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 모종의 보상의무를 지고 있다.¹⁷⁾ 리얼리즘은 외양의 모방이나 대상자체의 재현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로 정의된다. 리얼리즘 조형성은 모든 예술의 기초이며, 리얼리즘의 반대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허위주의인 것이다. 이러한 관념적 토대 위에서 ‘진실’은 19세기 중반을 향하여 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정직’이 리얼리스트의 구호가 되었다.¹⁸⁾

리얼리즘은 더욱 복잡하고 인간적인 가치로 채워져 있으며, 은폐되어진 진실이나 구조를 면밀히 조사하고, 또한 목적론적인 질서 상태의 가능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좀더 포괄적인 영역과 다층적인 심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리얼리즘은 선별적이며, 전형적인 것을 포착하는데 몰두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의 전형적인 것은 전개되는 다른 상황들과의 관계 아래에서 드러날 뿐이다.

리얼리즘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예술에 있어서 이념적인 문제와 창작방법에 있어서 표현상의 문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리얼리즘 조형성에 있어 이념적인 문제의 하나는 진실을 추구하는 리얼리티를 지향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실재의 이미지 내용과 똑같게 인식한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인식 밖으로 확대한 객관적 실재에 대한 동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리얼리즘 조형성에 있어 또 하나, 창작 방법상의 문제는 감각적 대상을 얼마만큼 정확하고 생생하게 묘사하느냐 하는 의미와 소재와 주제에 대한 것으로 인간적 진실을 제시한다는 의식적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인

간이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의 환경과 정확하고 완벽한 시대의 재생이 리얼리즘 조형성으로 여겨진다.

2) 각 장르별 리얼리즘의 조형성의 의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개념에서 출발한 철학에서의 리얼리즘은 자연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현실의 참다운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문학에서의 리얼리즘의 의의는 모방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재현시킴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환상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음악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음악 예술의 형식적 요소로 구체화 시켜 리얼리즘을 나타냈고, 쿠르베나 마테, 도미에 등에 주도된 미술에서의 리얼리즘은 초월적 세계 이탈과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편견 없이 관찰하여 표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화에서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재현한 영상에 대한 관객의 이성적 판단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을 요구하였고, 다큐멘터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사진에서는 대상 자체의 존재 양상이나 현실 생활의 한 단면을 가식 없이 촬영하는데 의의를 둔다.

19세기 리얼리즘 조형성이 20세기의 현대미술에 끼친 공헌은 ‘처음으로 현실성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적극적인 이해와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¹⁹⁾에 있다 즉, 리얼리즘 조형성 이후 현대미술은 관습을 타파하고 관념적인 틀에 얹매이는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리얼리티에 접근을 시도하고 ‘기존의 가치체계가 가지는 불투명한 성격으로부터 미술의 새로운 세계를 해방’²⁰⁾시키려는 특성을 공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2. 리얼리즘의 개념 요소

1) 동시대성

리얼리스트들은 그 시대에 적합한 것은 반드시 당시대의 현실에서 취해야 한다고 믿었다.²¹⁾ 리얼리즘의 조형성이 전개되면서 동시대성에 대한 요구와 그 개념이 더욱 엄격해졌다. 인상파의 ‘순수성(Instantaneity)’은 바로 동시대성이 극한에 이른

것이다. ‘지금’ · ‘현재’ 등이 ‘바로 이 순간’ · ‘바로 지금’ 등으로 된 것이다. 이러한 동시대성과 순간성을 동일시하게 된 데에는 사진의 힘이 컸다.

일반적으로 동시대성을 실현하는 길은 직면한다는 것 즉, 윤리적 절박성을 내포하고 있든지 혹은 시대의 사회적 · 인간적 가치에 대한 현상학적 무관심을 내포하고 있든지 간에 동시대성은 그 시대의 특질을 이루는 구체적인 경험 · 사건 · 풍속 · 모습 등과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리얼리티

관념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사상으로서 존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얼리티는 본질, 나아가서는 사실성 · 현실성으로 그 의미가 연결된다. 상상이나 착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전한 각각에 의해 얻은 표현에 대응하는 것이며, 대상으로 존립하는 사물을 의미하고 경험 내용으로서 구성된 대상을 가리킨다.²²⁾

3. 현대패션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의 유형 분석

1) 복식디자인에서 리얼리즘의 배경

리얼리즘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왔으며, 현대와 와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을 보면, 확실히 그 성격들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환경에 밀착되어 있고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이되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세계의 모습 자체도 지배적인 자본주의 제도 · 산업, 그리고 미디어의 형태가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화했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감각 모두의 양식도 변했다.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그리고, 형을 뜨느냐’ 보다는 ‘무엇, 그리고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할 것인가’ 가 의미가 있으며, 복식디자인 자체에 대한 물음 제기가 중요하다. 아울러 모더니즘 형식 주의와 추상 형식에서 도외시되었던 재현의 문제 · 복제의 문제는 권력 구조라든가, 젠더(성)와

몸(신체), 나아가 정체성에 대한 복합적인 문화담론과 더불어 다시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²³⁾

복식디자인에서의 리얼리즘 조형성은 고정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규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복식에서의 리얼리즘 조형성은 당대의 현실에 대한 정직한 기록이자 현실의 규명이며 세계관의 반영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복식에서의 리얼리즘 조형성은 매우 다양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지만, 리얼리즘 사상의 근본정신인 진실(순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면에서 도미에의 작품에서 나타난 리얼리즘의 사상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즉, 진실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되는 것이다.

복식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의 유형을 살펴보면, 복식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은 자신의 삶과 직접 관계되는 대상을 재현, 개인적인 관찰에서 일어난 일상적 친밀감을 담고 있다.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욕구와 결합된 역사가 바로 그것이며, 표현하고 싶은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만 작품을 하는 태도만이 있고 독창적인 역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창조된 이미지가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화된 소재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치밀한 사실기법의 성격을 드러내는 실재성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은 일상적이며, 도회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대상을 극대화하거나 클로즈업한다.

도미에의 작품에 나타난 객관적 실재성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서민들의 생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묘사하며 나타내고 있다.

복식에서의 실재성은 객관성, 일상성, 주제 재현의 정확성, 주관성을 배제한 비개성적, 선명함, 확실성, 정밀성 등으로 설명된다.

둘째,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풍요로워진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중시여기고, 인간적 양심을 각성시키며, 사회적 개선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현실을 해석, 제시하고 있는 현실 풍자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이며, 문제점에 대한 풍자적 경고이고, 동시대의 신념을 중시한다.

도미에의 작품에서 나타난 풍자성은 자신들만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르주아의 생활상

을 코믹하게 풍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관의 권위적이고 교만한 얼굴, 거만하게 휘날리는 그들의 법관복 등으로 다양한 법관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복식에서의 현실 풍자성은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풍자적 비판, 조롱, 외면과 내면의 결합에 의한 이중성, 현실을 반영한 현실성, 아이러니 등으로 설명된다.

셋째, 시대에 따라 예술적 가치와 소재의 다양화에 형태의 표현도 맞추어 나가려는 의도로 감각에 의해 지각된 것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동반한 주관성을 필연적으로 전제한 의도적 재창조성을 들 수 있다.

도미에의 작품에서 나타난 재창조성은 새로운 현실의 시각으로 내면의 이미지를 파악 표현한 돈키호테 시리즈를 들 수 있다.

복식에서의 의도적 재창조성에는 전위성, 자율 추구, 재구성, 재발견, 재조합, 재창조, 재해석, 표현의 중성화(사실+추상), 변형, 왜곡, 충격, 의외성 등으로 설명된다. 또한 이들 유형 중 의도적 재창조성은 현대 리얼리즘 유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실제 대상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시각능력과 내적 감수성을 통해 새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충격·새로움·위트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 즉, 현대 패션에 일상적인 요소들과 예술의 통합을 목적으로 객관적 현실 상황이나 사물을 어떻게 미학적으로 작품화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현실의 모방’에서 아닌 ‘디자이너의 보는 방식’에 의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듯 현대복식에 나타난 리얼리즘 사상의 근본정신인 진실(순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면에서 도미에의 작품에서 나타난 일상적 소재의 직접적 제시, 치밀한 사실기법의 성격으로 나타난 실재성과 사회적 개선을 위해 현실을 해석한 현실풍자성, 새로운 현실의 시각으로 내면의 이미지를 파악한 의도적 재창조성과 리얼리즘의 유형에서 이 현대 패션에서도 실재성, 현실 풍자성, 의도적 재창조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1) 실재성

조형성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유형 중 실재성은 사실의 세밀한 표현을 통해 정황을 전달하며 직설

적 전달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것들은 사실들의 단편적인 사진·물체들의 도입을 통해 조형성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전달해 준다.

일상화된 소재를 사용하여 현대 소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복식의 요소에 접목시킨다. 이러한 배경은 현대 소비 사회가 예술 분야를 침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상적인 소재의 직접적인 제시로서의 현대적 사실법은 다양하면서 새로운 개념들로 무장되어져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리얼리즘 조형성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실재성으로 보여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물의 세부와 다양한 질감을 극밀하게 묘사²⁴⁾하는 것이다. 즉, 산업분명에 비판적으로 시각을 드러내며, 창조된 이미지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기성품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다.

‘현실의 곧이 곧 대로의 모방’²⁵⁾ 즉 정밀한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리즘 조형성이다. 이러한 유형의 특성은 첫째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중시, 현실의 총체적 파악이고, 둘째가 자연의 질서대로 가 아닌 화면의 의미 내용에 따른 구성이며, 셋째로 개인의 주관적, 정서적 표현의 배제를 들 수 있다.

다양하면서도 급변하는 생활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재현으로서의 사실의 개념은 단지 모방이 아닌, 새로운 미적 가치 기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은 선행 양식을 재현하는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잘 알려진 친숙성을 갖는 소재를 선행 양식으로 한다. 하나의 개별



〈그림8〉 2002 Viktor & Rolf Paris Collection
FashionInsight Collections 2002 S/S, p.37

적인 양식 혹은 보편적인 양식이 재현의 소재로 사용된 것들이다. 과거 영화 속에서나 우리가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과거 중세 의상<그림8>²⁶⁾을 보여 주거나, 가면모도회의 의상<그림9>²⁷⁾과 같은 역사적 양식이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중국 민속복을 모티브로 한 형식을 디테일에 그대로 도입<그림10>²⁸⁾시키기도 한다. 디테일에 밀접한 표현으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난다.²⁹⁾



〈그림9〉 2004 Christian Dior Paris Couture
<http://www.style.com>



〈그림10〉 98/99 Hiroko Koshino Tokyo Collection
Book Moda, No.37, p.239



〈그림11〉 2004 Christian Lacroix Paris Couture
<http://www.fashionwild.com>

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의 외형을 그대로 재현하여 나타낸 작품도 있다.<그림11>³⁰⁾

(2) 현실 풍자성

리얼리즘 조형성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현실 풍자성의 유형은 사회적 내용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형상화하는 다양한 표현 욕구의 형성이다. 현시대에 대한 비판이며 암시로 문제점에 대한 경고이자 풍자적 경고인 것이다. 인간과 인간생활 속에서 삶을 직시하고 진실을 찾아 기록하자는 사풍으로 그 이전의 경향과는 차이를 보인다.

현실에서 소재를 취하고, 가치 판단을 통해 걸러진 내용을 패션을 통해 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 실제 세계란 곧 현실이며, 현실에서도 사회적 측면의 인식을 특히 중요시 한다. ‘그 시대와 장소 특유의 상황을 관찰하고 표현 한다’는 리얼리즘 조형성의 근본이념에서도 드러나듯 이들에게 동시대 상황에서 급속히 출현한 사회적 현상인 산업 사회로의 전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패션 분야에서 보방의 형식, 즉 재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는 기법이 이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특히 사회를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968년 코드 피이스라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남성 패션이 여성복이라는 안 어울리는 주제에 적용됨으로써,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에서 오는 모순을 야기 시키며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풍자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또 모순의 갈등이 심화되어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것



〈그림12〉 2002 Christian Dior Paris Collection
FashionInsight Collections 2002 S/S, p.158

은 원래의 코드 피아스와의 대비를 통해 더욱 아이러니 하다고 인식되는 것이다.³¹⁾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성의 혼란을 풍자적으로 나타낸 것이 많이 등장하였다.<그림12>³²⁾

둘째로 오늘날의 많은 복식들은 속옷을 겉옷화함으로써 기존의 복식의 전통에 도전하고 있다. Elizabeth Wilson은 속옷과 겉옷의 구분은 현대에서 중요한 부분을 반영하는데, 속옷의 모호한 위치와 그것의 가시성의 증가는 성성(sexuality)을 둘러싼 모호함과 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속옷이라는 형식을 부적절하게 겉옷에 적용시키는 것은 오늘날의 성의 모호함을 상징적으로 풍자하는 것이다.<그림13>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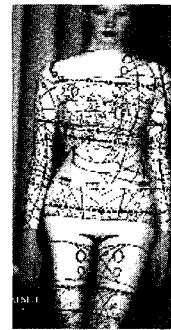
도시 사회에서 왜소한 인간의 존재라는 사회 현실을 고려한 작품도 있다. 이러한 작품은 상당히 아리나하고 모순적이며, 도시 사회의 소외된 인간상을 역설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국기를 모티브로 사용하여 애국심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고,<그림14>³⁴⁾ 넘치는 정보의 흥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



〈그림13〉 1999 Eri Matsui Tokyo Collection Book Moda, No.40, p.321



〈그림14〉 1998 Junko Shimada Paris Collection COLLECTIONS. '98 S/S Paris/London, p.255



〈그림15〉 98/99 Eri Matsui Tokyo Collection Book Moda, No.37, p.27

을 표현한 작품<그림15>³⁵⁾도 보인다.³⁶⁾ 현실을 풍자한 경향은 선행하는 양식을 부적절한 주제에 적용시킴으로써 풍자와 조롱·아이러니·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미술사에서의 그 것과는 다른 양상인데, 이는 ‘인간’이 착용함으로써 시간, 공간, 경우에 있어 다른 표현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³⁷⁾

(3) 의도적 재창조성

리얼리즘 조형성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의도적 재창조성의 유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술적 가치와 오브제의 다양화에 형태의 표현도 맞추어 나가려는 의도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낮익은 사물의 접합임을 알 수 있다.

재표현, 창조적 모방, 차이 있는 모방, 독특한 기법의 의도적 변형, 객관적 재현의 변형(pop적 이미지)이며, 기성의 이미지를 모방하여 새롭게 재창조하는 창조의 기법이다. 단순한 합성의 모방이 아닌 이해를 통해 자기만의 것으로 창조적 표현성을 의도하고, 표현성이나 의도가 분명하다.

모방을 통한 미의 실천을 뜻하는 말로서, 예술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있고 또한 창작 활동의 근거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시학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동일한 대상을 달리 모방하는 것은 예술가가 대상의 본성, 즉 참다운 존재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통하여 제 나름의 기법으로 재현하는 것이다.³⁸⁾

이러한 현상은 모방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대상의 비현실적 재현으로,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면 결국 ‘변형’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이 순화를 지향하고 선택함으로써 자연미

를 능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참다운 존재와의 대결에서 가능하고 디자이너의 자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³⁹⁾

즉 감각에 의해 지각된 것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재현하려는 것이 아닌 해석을 동반한 주관성을 필연적으로 전제한다.

즉 곁으로 드러난 현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에 의해 시대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근원으로부터 드러난 현상을 인상적으로 포착하고 재배열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사실에의 충실성과 복식 디자인 창조 사이의 균형 또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상의 전부한 묘사라는 극단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리얼리즘의 창조적인 면이 현실로부터 벌어지지도 않는다. 이것은 예술의 고유한 현실이 외부 현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지니는 인식적 가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⁴⁰⁾

생략, 강조, 변형하여 재구성하는 것으로 표현에 있어 새로운 감각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복식디자인에서의 표현적인 형태는 실제적인 느낌이 아니라 느낌이나 감정, 취지나 본질을 전달한다. 즉 “순수성에로의 노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식자체로의 형식성에 충실을 기한다는 점이다.

복식디자인에서의 창조의 개념은 독창성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 했다기보다는 좀더 새롭게 유연성을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의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디자이너의 의도와 목적, 표현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재현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 표현성이나 의도가 분명한 재창조인 것이다.

디자이너의 조형 의지와 능력은 창조적인 패션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관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표현적 수단으로서 디자이너가 의도를 갖고 새로운 패션을 창조해 내는 과정의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선행 양식이 모방되어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에 있어 디자이너의 의도와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

디자이너가 특히 외적인 재현을 의도하는 경우, 다소 근접하게 재현할 수도 있고, 또 변형의 과정을 추구 할 수도 있다. 상징적 오브제에 다양한 특

징을 부여하는 방법은 인간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그로테스크(grotesque)한 효과를 주기도 한다. 일상적으로 사물의 다른 맥락으로의 위치 이동을 통해 생기는 새로운 형식·내용의 모순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되는 소재는 일상적 사물이며, 사용되는 기법은 그대로 병치되거나 혹은 변형되어 이동하는 것이다.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고, 그 효과 역시 다양했다. 선행하는 소재를 모방하여 형식, 내용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주는 창조의 한 양식으로, 그 결과 인식하는 관찰자에게쾌와 더불어 신선한 충격을 주는 기법이다.

디자이너가 사용한 기법은 변형, 과장, 왜곡, 첨가, 삭제, 축소, 단순화, 생략으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새로움, 장난, 위트, 조롱, 풍자, 아이러니, 패러독스 등의 효과가 있다.⁴¹⁾

공작의 날개를 디자이너의 창의성에 의해 새롭게 표현한 작품과,<그림16>⁴²⁾<그림17>⁴³⁾ 정교한



〈그림16〉 1998 Todd Oldham N.Y Collection
COLLECTIONS. '98 S/S New York/Tokyo, p.120



〈그림17〉 1998 Anna Sui N.Y Collection
COLLECTIONS. '98 S/S New York/Tokyo, p.42



〈그림18〉 2002 Issey Miyake Paris Collection
FashionInsight Collections, 2002 S/S, p.295



〈그림19〉 1999 Yohji Yamamoto Tokyo Collection
Book Moda, No.40, p.335

장미꽃의 형태를 변형하고, 〈그림18〉⁴⁴⁾ 해초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재미있는 작품도 눈에 띈다. 〈그림19〉⁴⁵⁾

4. 현대패션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의 분석 의미

1) 리얼리즘 조형성의 유형 분류 기준 설정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은 사물이나 현상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현 상황에 깊이 관계하여야 하며, 사실적인 표현에 앞서 그 내면에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하고 디자이너의 개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의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성·의도적 재창조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실재성은 우리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현실 풍자성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들을 알려주고, 의도적 재창조성은 사실적 표현에 디자이너의 창작 능력이 함께 나타나 있어야 하는 유형으로 변형과 왜곡 등으로 충격적 효과를 내어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도적 재 창조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다이즘의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나, '사실'에 근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다이즘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2) 리얼리즘 조형성의 유형에 따른 의미

리얼리즘 조형성의 유형 중 현대 패션에서의 실재성의 의미는 일상적인 소재의 직접적인 제시로서 외관을 정확하게 재현하거나, 현실 참여라는 관점에 의해 우리 주변의 현실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며, 경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일상화된 주제를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디자이너 자신이 본 것을 충실히 모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흔히 말하는 의미에 있어서 복사는 아니다. 이것은 어떤 경향을 가진 묘사요, 디자이너가 의미를 발전한 것의 기록이다.

본질, 나아가서는 사실성, 현실성으로 그 의미가 연결되는 것으로 리얼리티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또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의 유형 중 현실 풍자성이란 시대를 반영하는 현실 비평접근이다. 우회적인 현실 비판과 문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점들과 지나친 산업성장에 의한 환경 문제? 지역적인 이질성,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문화 비평적인 풍자나 모방·은유·인용 뿐 아니라 과거나 현재를 재검토하고 선별하여, 이념에 맞는 대상물의 모방·인유·아이러니한 전도시대의 상황이나 현실적 문제 등을 표현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의 유형 중 의도적 재창조성은 진짜와 꽈 닮은 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사실주의를 이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보는 방식’에 의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 대상의 외적인 모양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작가의 시각적 능력과 내적인 감수성을 통한 표현임을 주장하는 유형이다.

복식 디자인이 상징적인 소재로 재현되어 새로운 충격과 더불어 그로테스크한 효과를 주기도 한다. 이들은 재현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으며, 감정의 관념들의 표출인 예술적 표현 또한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모방 작품은 표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현에 있어서는 디자이너의 자신이 독특한 기법이나 의도적 변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창작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하나의 선행 양식이 재현되어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에 있어 작가의 의도와 능력이 요구되는 관계로 특히 중요하다.

작품의 소재를 초현실적으로 해체시킴으로써 느낌이 전혀 다른 작품을 창조해 낸다. 그리고 일상적인 사물을 소재화하는 새로운 재료의 등장도 가져왔다.

대상 자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의 시각으로 내면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형상화하여 좀더 진실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의 실재적 유형은 객관성, 정확성, 일상성의 의미를 가진 이미지의 디자인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고, 현실 풍자성의 유형은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비판과 풍자의 의미를 가진 이미지 디자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의도적 재창조성의 유형은 전위성과 중성성, 변형, 충격, 자율성이 도입된 이미지의 디자인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리얼리즘 조형성 경향을 파악함에 ‘진실’을 강조한 리얼리즘이 어떻게 변화되어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지를 도미에의 회화와 연결시켜 파악하고, 리얼리즘 경향을 띠고 있는 현대 패션을 리얼리즘 조형성의 유형별로 분류 분석하여 어떠한 가치

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세계사에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를 거치는 근대 자본주의의 진행과 탄생은 프랑스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오노레 도미에의 회화에서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은 ‘당대 사회현실의 객관적 재현’이라는 진실추구의 한 방법으로 동시대의 사회현실을 조금의 가식도 없이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리얼리즘은 현대의 사상적 조류와 더불어 소비 사회·정보사회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사회를 다양화 시켰고, 그 다양화로 인하여 현대 사회의 성격 파악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그 시대의 경향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해야 한다는 필연성에 의거하여, 리얼리즘 조형성은 복식디자인에 필요한 이론적 요소로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즉 도미에의 회화에서 나타난 리얼리즘이 복식도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도미에의 작품에 표현된 리얼리즘 조형성은 복식에도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면서도 그 시대상황을 잘 표현하고, 그 표현 속에 지난 역사의 흐름이 공유 되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개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은 사물의 세밀한 사실묘사라는 과학적 태도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미를 추구하고 있다. 다양한 양식이 혼재하는 현대 패션에서의 리얼리즘 조형성은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사실적 요소·추상적 요소의 자유로운 도입과 사용을 통해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작용, 현대인이 처한 당면 상황 등을 반영하는 일상성을 추구한다. 또, 생활주변의 모든 것으로 관찰의 범위를 넓히고 가치부여를 하며 새롭게 조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도미에 작품에 표현된 리얼리즘의 조형성은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표현되고 있다.

19세기부터 강조되었던 ‘진실’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그 내면의 진실 뿐 아니라 외적 형태까지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실재성은

소재의 직접적 제시로 치밀한 사실기법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실적 재현에 의한 객관적 상호공감대야 말고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보는 유형이며, 일상적인 과거와 현재의 사물이나 소재를 작품으로 재현-단순한 재현이 아닌 디자이너의 창조적 정신에 의해 변화 발전된-하여 예술과의 통합을 유도하는 의도적 재창조성은 대상 자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의도에 의해 변형, 왜곡되나 내면의 진실은 그대로 유지,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실 고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실 풍자성은 사회적 개선을 위해 독자적으로 현실을 해석, 제시한다. 이 모든 유형은 그 근본 바탕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쉽게 각인되어 강한 친밀감을 유발, 높은 상업적 효과를 거두리가 본다.

따라서 도미에 작품에 표현된 리얼리즘 조형성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얼리즘 조형성은 대상 자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의 시각으로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이미지를 파악하고 형상화하여 좀 더 진실한 자아를 찾게 함으로써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현대의 위기를 극복해 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병택 (2002). Honoré Daumier의 繪畫世界에 관한 考察-諷刺畫를 中心으로 -. 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iii.
- 2) 정창기 (1997). 도미에(Honoré Daumier)의 리얼리즘 小考 -제 2공화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 3) http://www.wolganmisool.com/200005/internationa_l_02.01.htm
- 4) http://www.wolganmisool.com/200005/internationa_l_02.01.htm
- 5) <http://www.artwoman.net/artedu/historyfart/>
- 6) http://namgane.cafe24.com/images/west_morden/bmd25.jpg
- 7) http://www.wolganmisool.com/200005/internationa_l_02.01.htm
- 8) http://artchive.com/ftp_site.htm
- 9) 김경민 (1998). 풍자적 리얼리즘에 관한 조형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 10) Ibid., p.7.
- 11) <http://namgane.cafe24.com/images/>
- 12) 정준모 (1998). 한국의 모더니즘. 가나아트 여름호, p.46.
- 13) 미메시스-미무스에서 나온 말이며 ‘모방’ 혹은 제스츄어, 행위와 말 등을 통한 인물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진다. 즉, 현실의 모방적 표현은 플라톤에 있어서 예술의 본질로 여겨진다.
- 14) 최태만 (1998). 역사적 리얼리즘의 복권. 가나아트 여름호, p.41.
- 15) Ibid., p.41.
- 16) 아돌프 산체스 바스케스 (1993). *Art and Society*. 이론과 실천, p.222.
- 17) Grant, D. (1985). 리얼리즘. 서울대학교 출판사, p.23.
- 18) 린다 노클린 (1986). 리얼리즘. 미진사, p.4.
- 19) 박영방 (1987).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사, p.47.
- 20) 스테판 코울 (1982).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 한밭, p.175.
- 21) 최태만 (1998). Op. cit., p.41.
- 22) 린다 노클린 (1986). Op. cit., p.36.
- 23) 송미숙 (1999). 양식의 변화와 문화답론의 다양성. 가나아트 겨울호, p.176.
- 24) 함양아 (1992). 한국 현대회화의 재현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9.
- 25) Herbert, R. (1956). *The Meaning of Art*. Penguin Books, p.138.
- 26) FashionInsight Collections. 2002 Spring & Summer. p.37.
- 27) <http://www.style.com>.
- 28) Book Moda. No.37. p.239.
- 29) 고현진 (1994).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 30) <http://www.fashionwide.com/showroom/main/>

- main.asp
- 31) 오선경 (2000). 현대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리얼리즘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1.
- 32) FashionInsight Collections. 2002 Spring & Summer. p.158.
- 33) Book Moda. No. 40. p.321.
- 34) COLLECTIONS. 98SPRING & SUMMER. Paris / London. p.255.
- 35) Book Moda. No.37. p.27.
- 36) 고현진 (1994). Op. cit., p.55.
- 37) 고현진 (1994). Op. cit., p.57.
- 38) 이승우 (1997). 미술의 이해와 감상. 학문사, p.139.
- 39) 임영방 (1985). 미술의 길. 지학사, p.2.
- 40) 스텔판 코울 (1982). Op. cit., p.196.
- 41) 고현진 (1994). Op. cit., p.68.
- 42) COLLECTIONS. 98SPRING & SUMMER. New York / Tokyo. p.120.
- 43) COLLECTIONS. 98SPRING & SUMMER. New York / Tokyo. p.42.
- 44) FashionInsight Collections. 2002 Spring & Summer. p.295.
- 45) Book Moda. No.40. p.335.